

‘섬 모터브’ 주행사장 최첨단 기법 동원 몰입감 선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프레스데이

기후위기 시대 섬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섬 축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오는 5일 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관련기사 10면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을 진모지구 일원에 조성된 주행사장 프레스센터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프레스데이’를 개최했다.

프레스데이는 공식 간담회, 전시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으며 완공된 박람회장 현장과 핵심 테마 전시관이 공개됐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조성된 주행사장은 지역 축제의 장을 넘어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의 해법을 섬을 통해 제시한다.

바다 위 섬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 전시 공간들은 최첨단 전시 기법이 동원돼 몰입감을 선사한다.

주제섬은 가로·세로 40m, 높이 20m 규모의 외벽을 360도 미디어파사드로 감쌌다. 내부에는 섬의 형성과 분포 과정을 보여주는 미디어터널과 미디어아트쇼 생명의 나무를 연출해 섬과 바다가 품은 생명력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해양생태섬은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생태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공간이다. 폐기물을 활용한 정크아트와 3D 큐브 생물 모형, 모래시계 체험 모형 등이 전시됐다.

미래섬은 360도 원통형 파노라마 LED 영상과 도심항공교통(K-UAM), 수소선박 등 미래 운송수단의 실물·발견 모형이 전시됐다.

섬의 자원과 첨단 기술이 결합해 미래 산업과 생활상을 실감나게 구현했다.

5개 핵심테마…5일 개막 2개월 대장정
섬 생태 가치·미래 비전 등 제시 축제
‘K-UAM·수소선박’으로 섬-육지 연결
“단순영상·조형물에 집중 아쉬워” 지적
조직위 “남은 기간 성공개최 준비 만전”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 진모지구 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열린 프레스데이에서 참석자들이 미래섬을 둘러보고 있다. 아래는 행사장 전경. /조영권 기자



가족 단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감성 공간들도 돋보인다. 문화섬은 영화 서편제, 뮤지컬 맘마미아,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 등장한 국내외 섬 이야기들을 모형과 영상 그래픽으로 풀어낸 참여형 문화 공간이다.
보물섬은 모래놀이, 해양생물 증강현실(AR),



바다 불꽃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2개월간 이어진다.

하지만 핵심 전시가 단순 영상과 조형물에 집중돼 있는 데다, 전시관을 제외한 전체 행사장에 즐길 거리와 빈약해 행사 규모에 비해 아쉽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메인 전시관인 주제섬의 연출인 ‘생명의 나무’는 섬과 나무를 통한 생명의 순환을 의도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상당수 전시품은 단순 패널과 영상으로 대체돼 실감형 전시라는 기획 의도를 무색케 했다.

주제섬 외벽 360도 미디어파사드 역시 특정 위치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어 시야각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보물섬은 단순 설치물과 태블릿을 활용한 게임·독서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

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이동 동선 상에 있는 장애물이 전막에 가려져 있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이 밖에 박람회장 야외에는 일부 조형물 외에 설 수 있는 테이블만 배치돼 공간 활용도 속제로 남았다.

김종기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은 “남은 기간 시설과 콘텐츠, 안전과 교통 등 모든 분야를 점검해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5일부터 11월4일까지 진모지구와 여수세계섬박람회, 금오도·개도 등에서 열린다. 31개 국가 지방정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며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성환 기자

김대중 교육감 “내년 말이 통합교육 성공 골든타임”

월례조회서 일자리·교육 투자 강조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1일 “K-교육특별시를 만들어가는 골든타임은 내년 말까지로 1년6개월의 시간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남광주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남청사 대회의실에서 통합 이후 첫 월례조회를 열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대한민국의 경쟁력 약화, 교육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시가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남광주의 일자리와 교육 투자가 특별시의 성공을 좌우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할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전남 열린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위원회에서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전남광주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산업 일자리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

다.

이어 김 교육감은 “현재 전남광주 학생 수는 36만명이 넘고 이른 시간 안에 4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7조원 규모의 지역 교육 예산이 소비가 아닌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 배움이 좋은 일자리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교육 자산지소를 실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전남광주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K-교육특별시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광주 5개 자치구 ‘우수중소기업인’ 공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일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6년 전남광주특별시 우수중소기업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보 자격은 공고일(8월31일) 기준 광주 5개 자치구에 3년 이상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상시고용 10인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영능력이 뛰어난 모범적인 중소기업의 대표자다.

주요 평가 내용은 기업의 업력과 재정 건실도, 경영성과, 고용창출, 기술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준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근로자 복지 증진과 사회공헌 등 정성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선정 규모는 5명 이내이며 서류 심사, 현장 실

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린다.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면 2년 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이차차액 1%p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수출진흥자금 융자액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0%), 무역보험보증료 지원 한도 10% 추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10월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청사 창업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7층 창업진흥과)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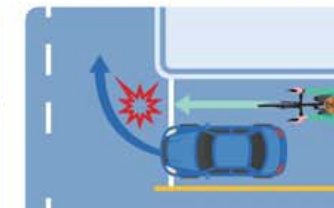
①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① 자전거는 한 줄로!



☑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불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는 가능

② 우회전 차량에 주의!



☑ 서행하며 차량 먼저 보내기
차량 운전자의 시야 벗어난 사각지대 주의 필요

③ 횡단보도는 두 발로!



☑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횡단도를 이용하여 건너기

②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 차량 신호로 좌회전 불가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

☑ 꼭 기억하세요! 2번의 직진을 통한 좌회전 방법



① 직진 후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② 직진
※내려서 횡단도로로 끌고 건너면 더 안전해요!

CMYK